

## ‘내 말’로 글쓰기

최지녀\*

### 1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조교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서는 「관동별곡」이나 「상춘곡」 같은 고전 작품을 해석하다가 어떤 구절에 이르면 “이기 내 말이냐? 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방금 읽은 구절이 작자가 다른 사람의 글에서 인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물으신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십중팔구 ‘남의 말’이었다. 인용이 아닌 구절을 들어 질문을 던지실 리가 없는 까닭이다.

전근대 시대에는 독서 경험의 공통분모가 워낙 컸던지라 상층 사대부들, 요즘 말로 소위 고급 독자들은 인용이 없이도 어떤 구절이 필자의 말인지 아닌지를 대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출판물의 양이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분과 학문의 전문성이 강화된 까닭에 인용 표지가 없는 한 여간해서는 어떤 글의 일부가 필자 자신의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

글쓰기교실에서 학생들의 리포트를 상담하다보면 이와 같이 리포트의 일부 내용이 글을 쓴 학생의 말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경우가 있다. ‘아리송함’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다른 글에 나오는 말을 리포트에 그대로 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개괄적인 언술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확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말을 리포트

에 쓴 경우다.

다른 글에 나오는 말을 리포트에 그대로 옮긴 경우, 상담 조교는 글의 표현 내지 글이 담고 있는 사유의 깊이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글을 쓴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해당 표현은 심증팔구 ‘남의 말’이다. 학생들이 ‘남의 말’을 리포트에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표절에 속하는 행위다. 물론 의도적인 표절은 극히 드물다.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표절을 하게 되는 까닭은 인용법 자체에 미숙하기 때문이거나, 결국 리포트는 수업의 과제인 만큼 수업의 담당 교수 및 수강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임의로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인용법을 숙지하고 리포트의 독자를 수업과 관계없는 제3자로 상정하여 글을 쓴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남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 글을 쓰는 학생들 중에는 리포트의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리포트의 주제와 관련해 자신만의 뚜렷한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한 학생이 많다. 리포트에 대한 구체적인 안(案)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면 책에서 읽은 내용에 의지하여 비슷한 말을 반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나열하기 쉽다. ‘내 말’이 빈곤하여 자꾸 ‘남의 말’을 가져다 쓰게 되는 것이다. 즉 인용 표시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 자신의 견해를 개진해야 할 대목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경우, 즉 개괄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글을 쓸 때 자신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앞서 그와 관련된 상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글을 전개하는 방식 중의 하나다. 마찬가지로 글을 다 쓴 후에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을 확장하여 전망이나 의의를 제시하는 것도 글을 마무리하는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런 언술 방식은 서론이나 결론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개괄적인 서술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며, 전술된 또는 후술될 내용과

얼마나 정합적인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령, 정보기술 내지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학생 리포트는 종종 “현대 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유(類)의 문장으로 시작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잘 선택하고 활용하여 정보사회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문장으로 끝나곤 한다. 이런 문장들은 좋게 말하면 일반론이요, 나쁘게 말하면 하나하나 한 소리다. 따라서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문장들은 포괄적이면서도 반론의 여지가 적어야 하며, 해당 문장 전후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독자는 필자의 태도가 안이하고 피상적이라고 판단하여 글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다.

많은 학생들은 서론에서는 본문에서 다룰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막연하게 깔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론에서는 당위적인 명제를 통해 어떤 교훈을 끌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칙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원칙에만 매여 글을 쓸 경우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글이 나오기는 어렵다. 특히 지금 학부에 있는 학생들은 입시용 논술 교육을 통해 서론과 결론을 이런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는 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므로 여기에서 벗어난 글쓰기를 해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사실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서술은 종종 웅변적인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에 소박하나마 필자 자신의 관점이나 인식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 서술은 진부함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한 서술은 딱히 누구의 말을 표절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많은 말과 글들에서 반복되어온 말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말이 아닌 ‘남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글 쓰는 이들은 일반론을 전개할 때 내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진실성이란 문학적 글쓰기에서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술적 글쓰기에서도 사실성과는 구분되는 진실성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이던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자신의 생각과 고민이 들어간 표현은 늘 듣고 보던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다. 글을 읽는 사람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내 글에 '남의 말'이 섞여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니 자연스럽다 못해 글쓰기의 본질은 어찌면 '남의 말'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데 있다. '남의 말'은 때로는 제 모습 그대로, 때로는 변형된 모습으로 내 글에 등장한다. 그러나 내 글 안에 있다고 다 내 말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은 물론이요 남의 말도 '내 말'이 되게 하는 것이다.

## 2

대학에서의 과제는 상당수가 글쓰기다. 그런데 쓰기는 필히 읽기를 수반한다. 서평이 되었던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나 소논문이 되었던 간에 읽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리포트 준비의 시작은 흔히 도서 대출과 복사가 된다. 그렇다면 결국 쓰기는 읽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는 읽기의 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신이 읽은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읽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붙여넣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다. 이 경우 읽기와 쓰기는 등치된다. 읽기=쓰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는 응당 달라야 한다. 읽기와 쓰기 사이에는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고 자신의 의미 맥락 속에서 재배치하는 창조적 간극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읽기는 단순한 읽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읽는 과정에서 남의 말을 내 말로 바꾸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쓰기가 읽기의 단순한 반복에 그치고 만다면 시간과 공을 들여 글을 쓴 학생의 입장에서나 그 글을 읽는 동학이나 담당 교수의 입장에서나 껍 아쉬운 일일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리포트의 주제에 자신이 없는 경우, 수업의 담당 교수나 해당 분야의 권위자의 논의를 금과옥조로 여겨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긴 하겠으나 이 역시 글쓰기라

기보다는 베껴 쓰기, 곧 읽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에 떠도는 비슷비슷한 말을 빌려온다든지 ‘긔어’ 오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논어』(論語)에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말로 풀자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이다. 이 구절을 읽기와 쓰기의 차원으로 가져와 그 의미를 풀어보자.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만 한다면 그 결과로 나온 글은 기존의 글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제대로 읽지 않고 상상의 나래만 편다면 그 결과로 나온 글은 독특한 글은 될지언정 기존의 성과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는 유익한 글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읽기와 쓰기 사이에서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글쓰기는 생산이 될 수도 있고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생산적인 글, 곧 좋은 글은 잘 읽고, 그렇게 읽은 것을 ‘내 말’로 잘 바꾸어 쓴 글이다. 이제 각자 자신의 글을 돌아보도록 하자. 내가 쓴 글은 내 말인가? 남 말인가? **유**